

“지루한 일상서 떠나는 순간 행복 찾아와”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이시상 여행작가

인간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안정적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빠른 속도와 경쟁을 강요한다. 인류 역사상 현대사만큼 빠른 속도와 경쟁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없다. 때문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의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친다. 쉬고 싶어한다. 지친 것이다.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오래된 여행자’ 이시상 여행작가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이 작가는 알베르 카뮈의 ‘시지푸의 신화’를 소개했다. “장자들이 문득 붕괴되는 일이 있다. 기상, 전차로 출근, 사무실 혹은 공장에서 보내는 내 시간, 식사, 전차, 내 시간의 노동, 식사, 수면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 행로는 대부분의 경우 용이하게 계속된다. 다만 어느 날 무엇 때문이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며 모든 것은 놀라움에 채색된 권태 속에서 시작된다.”

이 작가는 ‘무엇 때문’이라는 의문에서 나온 ‘시작된다’라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도 1988년 어느 날 직장에 사표를 던진 뒤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 3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곳을 여행해 왔다.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여행처럼 좋은 선물 없이 자기 성찰·치유의 기회

강사는 “지루한 일상에서 떠나고자 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찾아온다”라는 말과 함께 삶에 지쳐 현실과 일상에서 벗어나고 현대인들에게 2곳의 여행지를 추천했다. 즐거움과 휴식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일본 오기나와, 행복과 성찰을 찾을 수 있는 부탄이 그곳이다.

그는 오기나와를 ‘변방과 경계의 섬’이라고 소개하며 묘한 매력을 지닌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오기나와는 일본, 류큐왕국, 미국, 남태평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섬”이라며 “아름다운 해변과 바다가 많아 성수기엔 목욕탕으로 변하는 우리의 해변과 달리 한적하고 평화로운 유유자적하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오기나와는 지도를 펴고 버스를 타고 자유여행을 하기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바닷길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가슴이 차분해지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 아닐로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이 작가의 설명이다. 또 그는 오기나와에 딸린 이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4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이시상 여행작가가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기기 섬을 다스렸던 오야케 아카하지가 흥길동이라는 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작가가 두 번째로 소개한 부탄은 2010년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신경제재단(NEF)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곳이다. 이 작기도 처음에는 부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달러에 불과한 빈국 중의 빈국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부탄에 들어서는 순간 의구심은 사라졌다. ‘부탄은 돈이 절대선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국가이자, 이 주장에 도전한 최초의 국가다’라는 누군가의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그는 “온 국민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운 자연, 불교라는 종교로 통합된 사

회, 욕심이 적고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권력을 내려놓은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이 부탄을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작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행이 여행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그리고 관광지나 맛집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면서 여행의 패턴을 ‘쉽’과 ‘사유’로 바꾸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스스로 치유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행 자체보다도 여행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얻는 자기 성찰과 각성이 중요합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남 어패류로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안포마을 찾은 별교꼬막주식회사 김덕순 이사

“전남 어패류로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주고 싶어요. 보성 꼬막, 여수 피조개 등 싱싱한 전남의 어패류를 전세계에 알리는 박람회도 열고 싶습니다.”

21일 오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소개로 피조개가 특산물인 여수 안포마을(어촌계장 이희환)을 찾은 별교꼬막주식회사 김덕순(여·41) 이사는, 남편인 서흥석(49) 신개어촌계장이 대표를 맡아 지난 2012년 10월 회사를 설립, 4년 만에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 가공·유통회사로 키웠다.

“어촌이 자체적으로 6차 산업화에 나서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업들과 연계시켜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어촌 현장을 잘 아는 김 이사와 서 대표는 회사 설립 1년 만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100만달러 수출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HPC-CP시설과 할랄인증(중동지역 수출 인증제)을 획득해 수출기반을 갖췄으며, 꼬막장류 제품과 함께 꼬막통조림, 꼬막건조, 꼬막 허프셀, 새꼬막살을 앞세워 유럽, 중동지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별교 꼬막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은 생산에 주력하고, 저는 제품을 타 지역은 물론 세계 각 지역의 바이어들과 만나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철저히 분업화돼 있습니다. 서로 전문성을 인정해주시는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녀는 농수산무역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요리대회에서 꼬막요리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순천대에서는 무역실무를 주제로 강의하는 등 전방위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자그마치 어른의 단정함이 돋보였다. “안포마을의 노력은 대단합니다만,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안포마을 소득증대에 노력

안포마을 소득증대에 노력

꼬막통조림 등 中·유럽 수출

어패류 세계박람회 개최 희망

시대적 조류를 읽고, 소비자의 성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자세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함께 안포마을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 이사는 이날 안포마을에 사는 피조개의 건조·분쇄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안포마을에서 개발한 피조개 조미료의 가능성을 봤지만, 아직 HPC-CP 시설이 안 된 만큼 역할을 나눠 수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한 제품의 판매와 수출은 별교꼬막주식회사가 맡기로 약속했다.

“가능성을 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힘을 합쳐야죠. 개인적인 바람은 현재 22명인 회사 직원 수를 100명까지 늘리고, 전남 어패류만을 가지고 전문박람회를 개최하고 싶습니다. 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발달시킬 수 있는 안포마을 같은 전남어촌을 찾아 지원하시는 것도 잊지 않겠습니다.” /윤현석기자 chadod@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공부는 왜 하는가’ 출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미래를 만드는 교육의 힘을 강조한 ‘공부는 왜 하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임 기간 펼쳐온 정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책속에 담았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드는 게 아닌,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게 장 교육감 생각이 다.



갖는다.

장 교육감은 22일 오전 전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고 교육 철학과 교육 역할론에 대해 지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씨 광주서 특강

원로 영화배우 남궁원(80)씨가 22일 오후 3시부터 광주에총에서 진행하는 제24기 시민예술대학 초청강사로 나선다.



사단법인 광주영화인협회(지회장 문성룡)는 21일 “남궁원 선생이 지금까지 300여편 한국영화에 출연하면서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

범이 되는 삶을 살아온 예술계 원로”라며 초청 배경을 밝혔다. 남궁원 선생은 대한민국의 예술위원회이사 하버드 대학 출신으로 현 코리아 헤럴드 회장인 아들 흥정욱씨의 아버지이다. /김미은기자 mekim@

인사

◆사학연금공단
◇1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주천술

광주여대, ‘뉴스 생산과정’ 특강



광주여대(총장 이선재)는 21일 광주일보 김일환 편집부국장을 초청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는 강좌 ‘매스미디어와 뉴스읽기’(책임교수 장경룡)의 ‘뉴스 생산과정’ 특강을 진행했다. <광주여대 제공>

장성경찰, 김영란법 설명회



장성경찰(서장 백해웅)은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벌칙조항, 수사진행절차 등 사례중심 교육을 벌였다. <장성경찰 제공>

조선대, ACE 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조선대(총장 서재홍)는 최근 본관 교수학습개발팀 세미나실에서 2016학년도 2학기에 활동할 ACE 학생 서포터즈 32명을 선발, 발대식을 개최했다. <조선대 제공>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포럼’ 개최



전남대병원(병원장 윤택림)이 21일 병원 6동 백년홀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2016 의생명연구원 포럼’을 개최했다. <전남대병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축

▲하운(충남 서산 치기공사 대표)·이혜숙씨 장남 원범군 정영수(전남대 부동산학 전담강사)·황해성씨 장녀 다은양=10월3일(월) 오후 1시 충남 서산시 아르텔웨딩컨벤션, 당일 오전 9시 광주시 남구 빛고을교회(백은광장 버스정류장)·9시30분 전남대 치과병원 앞 전세버스 출발, 광주 피로연 25일(일)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알앤시아워딩홀.

중친회

▲전주씨대 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이화월례회=22일(목)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나주씨대 호남중친회(회장 정우화) 하반기 임원·이사 연석회의=24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경열로 168-1 나주정씨 호남중친회사무실 062-366-4669.

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회장 전주인)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आय회=24일(토) 오전 8시 완도 수목원 등 접수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비아초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석원) 한마당 체육대회=10월3일(월) 오전 10시 30분 모교 대운동장, 문의 010-3624-2378.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

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 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광산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중독문제(알코올, 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당사자나 가족 대상 무료상담 및 재활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비공개 무료상담 제공(www.gsgacc.or.kr) 문의 062-714-1233.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모집

▲광주 동구자원봉사센터 재능봉사단 양성 교육생 모집=10월12일(수)까지 주

1~2회 봉사활동 가능한 남·녀 시민 모집, 동화구연·풍선아트·네일아트 등 10월 중순 이후 교육시작, 문의 062-228-1365.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대학생 봉사단=자원봉사 상설체임·홍보, 손발맞사지,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외국어전문봉사단=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 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심청제가 정기요양기관 회원=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지원, 방문목욕(자랑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이남조씨 별세 이창호(조선대학교)·이정훈(스마일치과)·부귀·부선·부미씨 부친상 조인옥(국제고등학교)·유혜원씨

시부상 김중호(전남대학교)·박형로(헤인병원)·이건웅(이건웅치과)씨 병부상=발인 23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 故조희종 님(남/92세) 子/子婦 : 조봉길/조옥신, 광모/정애진 女/婿 : 조인영/김장남, 인선/정종기, 두례/심학기 *발 인 : 9월 23일 *장 지 : 일실호국원 *연락처 : 227-4381	301호 故이영민(명동약국)님(남/78세) 子/子婦 : 이경남/김은주, 승운 女/婿 : 이혜경/강상호, 주원/이드러만 未成人 : 장숙자 *발 인 : 9월 22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2
401호 故최학내 님(여/67세) 子/子婦 : 서정식/홍화이, 숙익/안영경, 경민/김아영 女/婿 : 서은숙/정병철 未成人 : 서금중 *발 인 : 9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402호 故박성태 님(여/98세) 子/子婦 : 최부선/이양득, 경목/장경주, 성목/김옥주, 경숙 女/婿 : 이경태/김계인 孫 : 이승원, 승현, 승진, 승현, 김상호 *발 인 : 9월 23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383
101호 故김병성 님(남/82세) 子 : 김원태, 원석 女/婿 : 김희태/김성홍, 희선/김팔호, 희숙/김종택 未成人 : 손관자 *발 인 : 9월 22일 *장 지 : 영락공원 *연락처 : 227-4000	102호 故김해자 님(여/88세) 子/子婦 : 박은호/김일식, 할호/김정숙 女/婿 : 박은희/신승현 *발 인 : 9월 23일 *장 지 : 신안회의성당 *연락처 : 227-4385

孝 金호 장례식장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